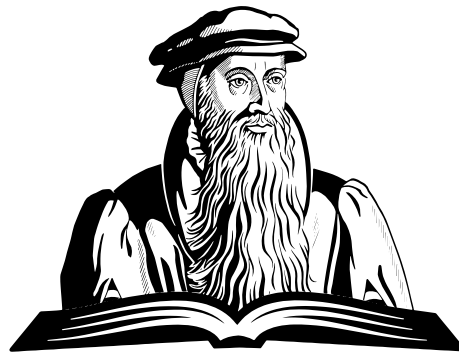

비디오 강의 학습 단계: 성경 신학

강의 26: 교회

강의 발표자: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The John Knox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 2019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판권. 이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가 없이 검토, 의견 또는 장학금을 목적으로 간단한 인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또는 이익을 위해 어떤 수단으로도 복제될 수 없습니다.

출판사, 존 녹스 연구소, P.O. Box 19398, Kalamazoo, MI 49019-19398, 미국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공인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합니다.

웹사이트방문: <https://ko.johnknoxinstitute.org>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자유 교회의 (continuing) 회중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는 그린빌 장로교회에서 복음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www.freechurchcontinuing.org

학습단계

성경 신학

30 강의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21 장 구약 · 9 장 신약

구약 강의들

1. 소개
2. 창조
3. 타락
4. 노아
5. 아브라함
6. 족장 I
7. 족장 II
8. 출애굽
9. 시내산
10. 성막
11. 희생제물
12. 제사장
13. 유업
14. 다윗
15. 시편
16. 솔로몬
17. 성전
18. 왕국
19. 예언자
20. 포로기
21. 회복

구약 강의들

22. 성육신
23. 속죄
24. 부활
25. 오순절
- 26. 교회**
27. 연합
28. 삶의 적용
29. 사명
30. 영광

강의 26

교회

강의 주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온 세계에 퍼지게 하는 수단이 되는 하나님의 거처로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본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16:17-18).

강의 스크립트 26

역사 속에서 많은 기관들이 세워졌고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한 위대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이어서 일어나고 쇠망하는 역사를 읽습니다. 국가들이 가장 융성할 때에는 결코 패망하는 일이 없고 영원히 존속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망하여 지구에서 사라져서 결국에는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국제적인 영향력과 인맥을 가진 능력있고 영향력있는 가문들은 물론이고 성공가도를 달리는 사업이나 회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동일한 과정을 걷게 됩니다. 오직 한나라만 참으로 영원하고 멸망하지 않고 남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시들지라도 오직 한 기관만 모든 세대를 이겨낼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16:18에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시간을 이겨내고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역사와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 바로 교회가 중심적인 기관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누가 교회의 회원이며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참된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하는 표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통치와 감독을 어떤 구조로 만드셨습니까? 교회의 권징에 속한 규율이 가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회원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선물에 이어서 일어난 교회의 발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번 코스를 통해서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속계획이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의 거처가 되는 한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떻게 설계하셨는지에 대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몇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교회의 초기 역사에 대한 영감된 기록을 제공합니다. 신약성경의 서신서들도 신약성경 아래에서의 교회의 삶과 기능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의 자세한 내용을 전해 줍니다.

먼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미 앞선 여러 강의에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연속성에 대해서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역사 속에 있는 이 두 시행체

제 아래에서는 오직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만 있습니다. 사도행전7:38에서 스테반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마찬가지로 바울도 신약교회를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의 영광은 창세기 초기에 나오는 여러 장들과 구약 전체에서 약속된 것으로서 많은 이방인 신자들을 포함하는 교회의 확장을 포함합니다.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자신을 위해서 한 백성을 구속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 한 왕국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숙고했던 구약의 주제들 중 많은 것들이 신약의 교회론에서 성취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거처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로 주셨습니다. 시편118:22,23에 보면 이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에베소서2:20-22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된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 본문은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교회에 거하시며 그곳에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고린도전서14:24,25에는 불신자가 교회의 공예배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는 자기 교회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머리이며 왕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1:18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라고 말씀합니다. 고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신약성경의 신학을 탐구할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와 그분의 영광을 증가시키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성경적인 교회론을 포기하게 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명예를 훼손하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의를 더 이루고 그 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47에는 가장 초기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결과적으로 성경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가시적이고 신적으로 지정된 교회를 버리거나 그곳에서 분리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벨직신앙고백 27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룩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회중이고 그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지위와 상태에 있던 기간에 스스로 만족하여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가입하여 한 몸에 속한 지체들로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의 가르침과 훈육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순종하며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우면서 교회와 연합하여야 한다.” 길게 인용했지만 이것은 역사적 개혁교회 신앙고백 가운데 하나에서 가져온 것으로서 주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아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신약성경에서 그렇습니다. 때로 이 말은 가시적인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비가시적인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한 좁은 지역의 회중을 의미하기도 하고 더 넓은 지역의 교회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징을 위해서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장로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에 대한 구분을 시작으로 신학용어가 가지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개의 다른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뿐입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하나의 교회를 두 개의 다른 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비가시적인 교회는 모든 시대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당연히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볼 수 없습니다. 가시적 교회란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과 그들의 자녀들 곧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과 규례가 주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가시적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귀중한 특권을 누리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거듭나지는 않았습니. 정말로 사실입니다. 구약과 신약성경에서 이런 구분을 볼 수 있습니

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2:28,29에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 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문구는 보편교회라는 표현입니다. 보편이라는 단어는 전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거 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로마카톨릭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보편교회는 온 세상에 있는 참된 교 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내내 살펴본 내용은 바로 교회의 본질의 중심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이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에 대한 신약성경의 교리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본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머리는 로마의 교황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한 대적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왕이 시며 머리시며 모든 권세가 그 분의 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리와 예배와 교회의 정치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 하여 우리가 믿어야 하는 모든 것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달된 그리스도의 권위에서 비롯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한 많은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을 읽어드리기 위해서 그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그것을 보다 풍성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에서 교 회에 대해서 몇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집과 몸으로 묘사하십니다. 갈라디 아서4:26에서는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묘사합니다. 또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건 물, 왕국, 하나님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 등으로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밭,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 양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포도나무의 가지, 그리고 공동체로 묘사합니다. 이것들은 교회에 관 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림 중에 몇 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조직신학을 공부하실 때 배우게 될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의 신실한 시행, 둘째, 성례의 신실한 시행, 셋째, 교회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그것입니다. 이것들은 참된 교회를 거짓교회와 구분해 주는 우리들의 표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실하다는 말이 완전 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4항과 5항은 바로 이 표지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교회는 역사 속에서 뚜렷이 보일 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항상 순결한 것과 오류가 섞여 있습니다. 가장 좋은 교회라도 이런 순결과 오류의 혼합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너무나 타락한 나머지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의 회원권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회원권의 필요성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던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회원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성경과 상관없는 고안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적어도 성찬명부 혹은 회원명부를 사용하는 것은 무시되어도 괜찮은 실 용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겠지만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역과 교리와 규율과 권징과 조직과 권위를 가진 가시적인 조직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과 서신서들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성경적인 근거를 생각해 보세요.

먼저, 교회의 회원들은 세례를 받았고 한 지역의 가시적인 교회에 가입되었으며 그 교회에 헌신되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수많은 본문들에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5:13과 같이 교회에 가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공개적인 신앙고백은 반드시 요구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역 시 마태복음10:32,33에서 이를 강조합니다. 둘째로 교회의 회원들은 셀 수 있기에 눈에 보이고 구분됩니다. 종이로 숫 자를 적어서 세든 손가락으로 세든 상관없습니다.

셋째로, 신약성경은 반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이 표현은 골로새서 4:5와 같은 성경말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공개적인 모임에 단순히 참석한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그런 모임도 따로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인용했던 고린도전서 14:23에 보면 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세상과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가족이 바로 이 모든 개념의 기초입니다.

넷째로, 교회의 회원들을 알고 돌보아야 할 책임을 가진 장로들의 다스림과 감독 아래 있는 사람들 사이에도 구분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은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권위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전서5:3에 나오는 표현 을 보면 문자적으로 양들이 제비뽑기로 지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니면 장로들에게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말씀

하는 사도행전20:28,29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이리떼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지 아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13:17은 장로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구체적인 신자들에게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섯째로, 교회의 권징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쫓아낸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2장과 마태복음18장의 표현을 사용하면 말이죠. 구분되는 회원이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회개한 사람들은 다시 회원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그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으로 여행을 간 회원은 자신을 추천하고 칭찬하는 편지를 받아야 합니다. 신약성경 전체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일곱번째로,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명칭은 그리스도의 가시적 교회에 대한 회원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에서 교회를 집, 몸, 건물, 가족, 왕국, 도시, 양 등으로 표현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덟 번째로, 교회는 한 사람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해 주든지 아니면 거짓을 드러내든지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5장에 나오는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일서도 역시 이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과 관련하여 이 강의의 서두에서 우리는 교회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과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살펴보았던 가정의 원리에서 흘러나옵니다. 구약의 할례의 패턴에 대응하는 신약의 가정세례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례와 할례는 둘 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보이는 백성으로 편입된다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은 다 은혜언약의 표지이며 인장으로서 신자와 그들의 자녀를 향한 약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이 유월절을 대체하듯이 세례는 할례를 대체합니다. 물론 할례와 세례 둘 다 어린이가 중생했다고 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시적인 교회 안에 있는 약속에 대한 인장이며 상당히 중요한 특권을 반영합니다. 유아세례에 대한 성경적인 교리를 철저히 해석하는 것은 이 강의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범위와 시간을 넘어 가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의 정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교회와는 다른 권위의 구조를 지정하셨습니다. 각각은 저마다의 권위의 상징이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국가에 칼이 주어졌지만 교회에는 열쇠가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회초리가 주어졌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의 관심은 구속사의 발전이라는 빛 아래서 교회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직은 바로 자신의 교회에 대한 이 통치에서 드러납니다. 예배에 대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구조와 조직도 사람들이 혁신하고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열려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특정한 교회의 정치를 지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분이 정하신 것을 마음대로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권위가 왕이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교회의 권세 자체의 권위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권위의 출처가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사실과 권위의 표준은 교회나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권세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선언적인 것이지만 입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새로운 규율과 교리와 규칙을 만들어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함으로 그 말씀을 옹호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것은 사역적인 것이지만 권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권세는 양들을 섬기라고 주어진 것이지만 그들 위에 군림하라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지만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열쇠를 받았지만 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세는 자유재량에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성경에 물어야 하지 믿음과 교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이런 범위 내에서 교회의 권세를 행사할 때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섬기라고 세우신 대표자들을 통해서 행사됩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권세이지 교회나 교회의 직분자들 안에 내재되어있는 권세가 아닙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정치를 위해서 지정하시고 승인하신 것에 대한 문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권위가 행사될 수 있는 특정한 교회정치를 지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세우신 패턴에 복종하고 그것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정치 안에 지정하신 직분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한 자격이 주어졌는데 성경은 이것

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디모데전서3:15입니다. 사도직과 선지자직이 만료된 이후에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이어질 세 가지 주요한 직분을 지정하셨습니다.

첫째는, 목사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목사들을 설교와 가르침과 세례와 성찬의 성례식을 집행하는 책무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직분은 치리장로와 더불어 양들을 목양하고 감독하는 다스림의 책임을 가진 이들을 강도장로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목사는 말씀 사역에 관련된 구별된 부르심과 구별된 임직과 구별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장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치리장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양떼의 감독자요, 목양자로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주교 혹은 감독과 장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직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직분에 대한 동의어입니다. 실제로 이 용어들은 신약성경에서 교호적으로 사용됩니다. 디도서1:5,7과 빌립보서1:1과 그 밖의 다른 구절들을 보세요. 성경은 각 회중에 복수의 장로들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양들을 다스리고 감독하는 일에 관하여 완전히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교회의 권징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권위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권세도 있습니다. 히브리서13:17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직분은 집사적입니다. 집사들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실제적인 사역을 돕도록 임명되었습니다. 이 사역은 과부와 고아들과 같이 교회 안에 궁핍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필요를 돕는 일을 섬기면서 이를 통해 그들은 장로들이 영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자유롭게 해 줍니다. 다른 모든 권위를 가진 지위와 마찬가지로 이 세 직분에서 이 권위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살펴야 하는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어졌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종이 되라는 것에 제대로 강조를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목사, 장로, 집사의 세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3장과 디도서1장과 같은 곳에서 이 세 직분이 갖추어야 할 자격을 명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상위의 장로회에 상소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상위의 장로회에게 통치의 권세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15장에 나타납니다.

지역교회의 경우 목사와 일단의 치리장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당회 혹은 콘시스토리라고 부르는 지역회중의 장로회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한 감독기관 아래 여러 지역회중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감독기관에는 각 지역교회에서 온 목사들과 장로들이 있고 이들은 노회 혹은 클라시스를 이룹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리가 시노드 혹은 총회라고 부르는 가장 상위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교단 안에 있는 모든 노회에서 온 모든 장로들과 목사가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구조를 주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넷째이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의 권징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정치의 한 기능이며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참된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권징은 일반적으로 그리스인의 삶 속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권징 혹은 징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더 넓은 권징이라는 개념의 한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교회의 권징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순결과 화평과 선한 질서를 위해서 자신의 가시적 교회에 엄숙히 약속하셨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권징이라는 말은 제자라는 말과 같은 어근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백성들을 훈련하는 수단입니다. 교회의 징계는 가시적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어떤 회원이 교리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심각하고 추한 범죄를 범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이 있는 훈육이 건강한 가족에게 필요하듯이 신실하고 사랑이 있는 교회의 권징은 건강한 교회에 필수적입니다. 사랑이야말로 경건한 교회의 권징의 동기가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천국열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열쇠를 신실하게 사용할 때 이 땅에서 무엇이든 매거나 풀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천국에도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니다. 이것은 교회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권세이기에 고린도전서5:4,5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권징을 목적으로 행할 때 그리스도의 특

별한 임재는 그분의 교회와 함께 합니다. 디모데전서5장에 나오는 것처럼 장로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선택된 천사들 앞에서 이 의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이 지정된 견책을 통하여 그 권징을 시행하십니다.

교회의 권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몇 문단으로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6:1은 우리에게 권징의 한 가지 목적은 잘못된 형제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로 디모데전서5:20은 권징은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1:20은 권징이 범죄한 사람을 교정하는 수단이 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5:7은 떡덩어리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같은 장 9-13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고백의 정당성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11장을 비롯한 다른 곳에서는 권징에는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는 목적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징규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성경의 법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함께 숙고해 보았던 간단한 요점들을 통해서 볼 때 교회가 정말로 유익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요점들 중에 몇 가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적인 수단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지정된 수단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수단에는 말씀을 읽는 것과 노래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식과 기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교회가 주는 다른 유익은 예배를 위한 공적이고 공동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건하게 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힘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최우선순위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적으로 보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유익은 거기서 일어나는 목양과 하나님의 양떼들이 받는 감독과 양육과 책임입니다. 또한 성도 상호간에 하는 권면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몸이 서로를 향해서 일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서로”라는 말을 하는 모든 구절들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있는 다양한 은사와 각각의 회원들이 전체 몸을 세우기 위해서 행하는 공헌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온 세계에 퍼지게 하는 수단이 되는 하나님의 거처로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신약신학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지는 위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